

수 학 보 고 서

소 속	명지대학교 행정학과(대학(학부)/전공)	
파 견 국 가	스위스	
파 견 대 학	The Geneva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Haute école de gestion de Genève)	
파 견 기 간	시작	2024년 9월(년/월)
	종료	2025년 6월(년/월)

준 비 과 정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까지 과정
	영어 말하기에 열의가 있었고, 좋아하는 과목이 영어였습니다. 영어 동아리 TIME에 소속되어 활동했고, 전공영어 과목을 수강하면서 교환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 친구들로부터 프로그램을 추천받았습니다.
	파견교 지원 과정
	경영학 공부를 고민하던 중, 교환학교 목록에서 스위스 경영학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스위스를 방문한 경험이 있었기에, 1년간 거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생활환경과 안전 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네바는 불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에는 영어로만 진행되는 과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언어적 제약 없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파견국가 출국 준비 과정 (비자, 항공권, 준비물 등)
	비자는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발급받습니다. 예약 후 방문하는 시스템으로 대기가 3개월까지도 길어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항공권 구매한 직후 대사관에 방문예약을 잡았습니다. 두껍고 큰 전자기기 플러그 여행용 어댑터는 학교에서 사용하기 번거롭습니다. (공용공간에는 보통 세개의 플러그가 붙어있어서 여럿이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여행용보다 작은 모양을 인터넷에서 판매합니다. 퓨즈 나갈 걱정도 없으니, 스위스용으로 잘 선택해서 구매해서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파 견 학 교	공항 픽업 & 오리엔테이션
	픽업 없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학교 주관 하에 이루어집니다. 강당에 모여 기본적인 안내사항을 전달해주며, 모든 교환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음날에

	는 단체활동도 있으니 가능하면 둘 다 참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업 & 학교 활동
	수업은 경영 과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팀 프로젝트와 발표가 많은 편입니다. 저는 주로 경영관리와 다국적기업 운영 관련 과목들을 수강했으며,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시각을 키울 수 있는 유익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희망하는 진로와 직무에 따라 선택과목을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업마다 요구되는 활동의 수준과 방식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강 전 수업계획서와 평가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숙사 및 학교 내 편의 시설
	‘Cité Universitaire de Genève’라는 학생 기숙사에서 1년간 머물렀습니다. Studio를 제외하면 전부 공용공간을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개인침실은 제외). 여러 기숙사를 학교 측에서 추천해주며, 때에 따라 공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 공식 어플: ‘PocketHES’에서 학교지도, 시간표, 수업자료, 그리고 성적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학교 0층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식사와 간단히 티타임 가능합니다. 도시에 도서관이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회가 위치한 건물 도서관을 많이 이용합니다.
주 변 환 경	거주지 주변 지역 정보
	Champel이라는 지역에 거주했으며, 제네바 내에서도 부촌으로 손꼽히는 지역입니다. 가족단위 거주자가 많아서 한적하고, 안전합니다. 공원, 학교, 마트, 약국과 같은 편의시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버스와 트램 정류장이 곳곳에 있어서 편리합니다.
	파견 대학 소재지 지역 정보
	제네바는 도시 전체가 연결된 네트워크 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숙소와 교육시설이 전반적으로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타학교 도서관에 방문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만 25세 이하인 학생들은 제네바 교통비 100% 지원해줍니다.
비 용	등록금 (해당 학생만)
	X
	기숙사 비용 (해당 학생만, 학기당)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숙사가 없어서 따로 구해야 합니다. 제네바에서는 학생 기숙사를 운영합니다. 평균적으로 600~1500프랑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월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가 비용 (교재비, 보험 등)
	교수님들께서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습자료를 제공해주십니다. 스위스는 건강보험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보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swisscare라는 보험사를 통해 학생보험을 가장 많이 신청합니다. 저는

	월 59프랑의 학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제네바 칸톤(=시 단위)에서 지정된 고가의 보험으로 자동 가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활비
	저는 보통 월 80만원을 목표로 생활했습니다. 외식비가 특히 비싸고, 1인가구가 요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취할 때보다 더 여유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와 아닐 때를 비교했을 때, 편차가 심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훨씬 많이 지출하기도 합니다.
	한달 평균 지출 비용
	스위스에서는 물 한병이 1700원 이상입니다. 제가 있는동안은 환율변동이 심했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해보지 못했습니다. 대략 짐작해보면, 생각보다 식비에서 지출이 컸으며, 숙소, 보험, 통신비 등을 고려했을 때, 월 200만원정도 생각합니다.
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	
<p>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외국에서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직접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고, 실제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후기 또한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p> <p>학교와 학생회는 교환학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예를 들어 할로윈 파티, 스키캠프, 소풍, 점심 및 아침 식사 모임 등—을 주관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현지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수업이 겹치지 않는 다른 교환학생들과도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이 활동들을 통해 현지 학생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현지 생활에 훨씬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스위스의 흥미로운 문화와 추천 여행지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p> <p>한편, 한국인 친구들과 교류하고 싶지만 자주 여행을 다닌다는 이유로 아쉬워하는 현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행보다는 파견 국가에 머물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교류한 경험은 시야를 넓혀주었고, 여행 이상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p> <p>또한 유럽에 머무는 동안 한국의 소중한 점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부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떠나보니 한국의 장점들이 더 뚜렷하게 보였습니다.</p> <p>무엇보다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지금, 유럽에서의 학습과 교류 경험은 단순한 해외 체류를 넘어, 현지인의 생각과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를 통해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 사회적 흐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p>	

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처럼, 타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나와 우리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사진 첨부 (최소 5장)









